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회의

○ 일　　자 : 2025년 9월 10일(수) ~ 2025년 9월 24일(수)　* 현장 회의 기준

○ 장　　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902호

○ 선정위원 : 총 106명

○ 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교양부문 신청 내역 보고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역사/지리/관광	계(종)
171	704	310	1,526	457	426	420	111	503	4,628

- 세종도서 교양부문 회의방법, 선정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회의 및 선정도서 확정(440종)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역사/지리/관광	계(종)
16	67	29	145	44	40	40	11	48	440

붙임 :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회의 선정 총평.　끝.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회의 선정 총평

ㅇ 분　　과 : 총류

ㅇ 상정 도서들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 독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주제는 총류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도서인 그림책,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도구가 된 AI와 유튜브, 수필, 시사 문제를 다룬 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정하는 데 고심을 하였다. 총류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도서들은 그 내용과 편집 기획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이 갖고 있는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과 편집 스킬이 돋보이는 도서도 있었지만, 내용은 좋으나 디자인과 서체 및 폰트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도서도 있어 아쉬웠다.

ㅇ 상정 도서는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다채로운 편집과 방식으로 친숙하게 그리고 있다. 저널리즘, 출판, 고문헌, 상식, 지역학, 인권, 과학 등의 폭넓은 주제가 다채롭게 제시되었으며, 저자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이 주제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있다. 일부 도서는 실험적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창의적 요소를 부각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다양한 본문 구성으로 책 읽기의 매력을 극대화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유튜브, 디자인, 프로젝트 등 기술 관련 도서는 최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어 독자들이 독서를 실생활에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된다.

ㅇ 올해 교양도서 컴퓨터 분야 출품 도서들을 보면,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AI와 엑셀, 구글 시트, 패들렛, 노션 등 노코드 기반 도구, 그리고 개인 창작 및 콘텐츠 제작 전반에서 대중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 활용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AI의 원리와 사회적 의미를 다루는 교양서적 성격의 도서도 적지 않았다. 교양 도서로의 선정에 있어서 특정 플랫폼과 도구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소비되거나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 중심 활용서보다는 보편적인 가치와 장기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우선하였다. 즉 단순히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기술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문해력과 연결 지어 독자들이 배울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고 독자에게 사고의 깊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ㅇ 올해 상정 도서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서, 인공지능을 일상 업무, 개발, 실생활 등에 적용하는 안내서까지 매우 다양한 인공지능 서적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인문학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도서 등도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IT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보안, 디지털 자산,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다 완성도 있고 쉬운 방법

으로 소개하는 도서도 있었다.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소개하여 일상에서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도서도 다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훌륭한 도서가 상정되었음에도 그중 제한된 숫자의 도서만 선정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보다 많은 훌륭한 도서가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ㅇ 분　　과 : 철학・심리학・윤리학

ㅇ 상정된 도서는 그 독자층과 주제에서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도서들 사이의 수준 차이는 상당하였다. 특히 눈에 띈 점은 인공지능과 니체를 다룬 서적의 비중이 컸다는 것이다. AI의 급속한 발전과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불확실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아 정체성 탐색과 자기 극복의 과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대중의 필요와 공감을 반영하면서도 기획력이 돋보이는 양질의 도서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어려운 출판계의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 종 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ㅇ 동양철학, 서양철학, 윤리학 분야에서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서적을 선정하고 심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양철학, 서양철학, 윤리학 분야에서 각각의 심사위원이 원하는 서적을 선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독자들이 선정된 서적을 보고 잘 읽어 주면 선정한 심사위원들도 잘 선정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선정된 서적은 공을 들여서 선정한 것이므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정된 서적들은 독자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선정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조금의 도움이라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서적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겠지만, 선정된 도서들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하고 선정한 것이므로 읽어 보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ㅇ 상정 도서들은 철학과 윤리학, 그리고 인문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탁월한 면이 돋보였다. 특히 철학에는 니체에 관련된 주제와 논어 및 공자에 대한 주제가 많았으며, 현대의 복잡한 세계 속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방법을 제시하려는 면에서 가치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단순히 포괄적인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며 통일적인 시각을 제시하려는 교양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단지 번역서의 숫자

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번역서가 많아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심사대상에는 불안, 죽음, 성공, 그리고 글쓰기 등의 문제를 다룬 것이 많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쇼펜하우어, 니체, 푸꼬,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다시 소환되는 현상이 그러하다. 대체로 번역서가 창작서보다 많다고 느껴졌다. 전반적으로 교양서 출판의 수준이 상향되었다고 느껴졌는데 이는 활자화된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쓰기 편집 기법에 많이 유념한 듯하다. 창작적 성격의 그리고 우리 고전 우리 삶의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는 선정 정책에서의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할 듯하다.

ㅇ 전반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출간되었고, 특히 철학을 삶과 연결시키는 책들이 많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중에는 수준이 낮아 보기 힘들 정도의 책도 포함되어 있고,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에 쏠리는 유행에 민감한 느낌을 주는 책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쟁점을 다루거나 실존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일상 속 침잠을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책들도 출간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철학적 요청에 부응하는 책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ㅇ 상정 도서는 철학, 윤리, 심리, 고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학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두드러졌고, 철학사의 경우도 단순 철학사의 기술이 아니라, 주제를 가진 철학사가 제시되고 있다. 윤리학은 현대적인 상황에서 생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윤리학은 윤리객관주의에서 개인주의윤리까지 다양한 윤리적 주제가 제출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윤리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윤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새롭다. 고전에서도 고전의 충실한 해석에서부터 이들을 현대인에게 적합한 언어로 풀어내려는 노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저작 가운데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하고, 가졌으면 하는 주제를 흥미 있으면서도 일정 정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저서를 추천한다. 깊이 있으면서 가독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어렵지만 상정도서의 저자와 역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ㅇ 철학/심리학/윤리학 분야 도서는 동서고금의 많은 지적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문제들에 주목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나아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한 도서들이 다수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철학에서는 현대철학 분야를 고찰한다든지 철학의

현실적 응용을 시도하고, 심리학에서는 정신병리현상/노년의 삶/죽음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현대인에게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명상록을 소재로 한 도서들도 눈에 띈다. 다수의 번역서들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ㅇ 상정된 도서들은 실존의 문제, 환경 문제, 윤리적·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특히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동서양의 고전에서 찾아 제시하고자 하는 책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논의의 수준에서도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학술적 논의에 근접한 것에서부터 넓고 가볍게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처방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양했다. 교양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거나, 철학이나 윤리학의 논의를 그림 등 다른 영역과 접목하여 생각하게 하는 저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ㅇ 상정 도서들은 동서양 철학, 심리학, 윤리학 등 인문학의 핵심적인 분야를 다룬 다양한 도서들로서, 그 가운데 많은 도서들이 기존의 학문적 이론과 영역을 선명하게 밝히는 도서들이고, 일부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도서들도 있었다. 이는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확장하는 바람직한 학문적 논의의 전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해소나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에,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부가적이고 확장하는 논의들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학문적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는 도서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도서들은 당연히 학문적 수준을 몇 단계 높여주리라 기대된다.

ㅇ 한국에서 개인의 마음건강과 생활적응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학계 및 현장의 대응을 반영하듯 심사 대상 중 대다수 저술이 심리상담, 적응, 정신건강 등의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음. 이 가운데 일부 독창적이고 심리학 지식 기반이 충실한 저술들도 있으나, 다수의 저술은 교양도서로 권장할 만한 내용과 구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지각심리, 진화심리, 정서심리, AI와 삶, 기억, 노화 등의 주제 영역에서 독창적이고 내용이 충실하며, 가독성이 높은 우수한 도서와 역서들이 다수 발견된 점은 고무적임.

ㅇ '나를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사회적 담론으로 회자되는 시기적 특성에 맞춰 상정 도서들 역시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한 주제가 많았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이해는 타인 이해와 공동체 이해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측면이지만, 앞으로는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 집단, 공동체, 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된 주제를 담은 책들이 많이 출판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으로는 함께 잘 지내는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되는 나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뇌과학과 AI 역시 새롭게 급부상한 주제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담은 책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좋은 주제의 책들이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책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었다. 비슷한 내용들 속에서도 구성과 편집, 구체적 내용 구성에 더욱 힘쓴 책들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상정 도서들은 불안, 분노, 명상, 디지털 시대와 같은 근래 심리학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거나 기존의 익숙한 심리학/정신의학적 개념과 치료 기법들을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일상에서 적용토록 돕는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실증적인 뒷받침을 주석한 전문 지식을 제시하면서도, 실제 사례와 예시,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접근 가능한 대처 방략과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독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이에 일반 독자에게 교양 도서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심리학을 표방하는 상당수 저작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경험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을 심리 분야의 교양과 지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다. 아울러 일부 심리학의 원리들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면 심리학 교양서적이 된다고 오판하기도 한다. 물론 대중의 취향과 세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집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거론하는 정도가 과도할 수는 있다. 기존 세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심리학의 핵심적 사항들을 간과하고 자의적이고 지엽적인 논리에 따라 제목에 ~에 관한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또한 저자의 면면을 볼 때 자칭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침소봉대의 과장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유사 경력자들의 후안무치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위의 비판 기준을 넘는 여러 저작이 있어 자신 있게 추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번역서의 내용이 국문 저서에 비해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아쉬움도 지울 수가 없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일반대중을 위한 심리학 교양서적이 많이 출간되기를 희망한다.

ㅇ 우울과 불안, 트라우마 등의 정서적 문제와 자존감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심리학 교양서적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여전히 심리학에서 중요한 화두인 것 같다. 또한 아동

과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쉬운 책이나 동화책, 만화책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된다. 심리학 분야 교양서적이 심리학의 지혜를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출판지원사업이 앞으로도 확대되어 일반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ㅇ 상정 도서들이 다룬 주제는 심리학 고전의 현대사회적 재해석이나 시대에 영향받지 않는 일반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자신감과 자존감 및 대인관계 기술을 다룬 도서에서부터, 최근 심리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 자기 연민과 명상 수행, 감정 조절 방식으로서의 주의력 훈련을 담은 전문 교양서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서적이나, 현대사회의 번아웃, 회의주의와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시도들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되짚고 이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웠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 성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관계 속에서 연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분　　과 : 종교

ㅇ 번역서들이 국내 저자들이 집필한 책들에 비하여 양질의 저서가 많았다. 한국의 기독교 저서들은, 물론 종교 분야의 책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자층만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교회 종사자들이 저서의 교양적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좁은 독자층을 위하여 쓰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외국의 좋은 신학 분야 저서를 발굴하여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신학 저서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신한 시선,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는 기독교 분야 저서들이 더 많이 출간되기를 희망한다.

ㅇ 현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종교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는 도서들이 다수 재공되었다. 가톨릭, 개신교의 현시대성의 담론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장성, 적용성을 가진 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출판되어 인상적이었다. 도서들이 현시대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논의한 점이 돋보였다. 현시대의 종교 출판의 양상에서, 설교집, 강해집, 간증집보다는 시대를 읽어내고,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세계의 이슈들을 담아내며, 교회의 본질을 논의하는 저서들이 출

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되어 한국 출판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한다.

ㅇ 기독교1 분야에 총 120종의 서적을 대상으로 심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 분야에는 설교집과 강론집, 혹은 개인 평전 중심의 도서들이 많았다. 국내 작가가 펴낸 책들과는 달리 번역서 중에는 기획과 내용에서 참신하고 일반 독자에게도 충분한 호소력을 갖춘 서적들이 많았다. 이는 국내 기독교계 출판사의 기획력 제고와 보다 참신한 신진 작가의 발굴이 요청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런 가운데에도 몇몇 서적은 해당 종교 외에 일반인이 독서하기에도 유익하고 생각할 만한 거리를 제공하기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러한 책들을 중심으로 신중을 기해 선정에 참여하였다.

ㅇ 상정 도서들이 다룬 주제들은 영성, 역사, 예술, 환경, 인권, 사회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이해와 맞물린 주제나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통찰, 교회의 문제점, 현 진단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소견을 담은 도서들이 있었으며, 예술과 접목하여 종교적 의미와 성찰을 다루는 도서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도서들은 종교적 관점에서의 본질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인간, 역사, 사회 등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교양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정된 도서 가운데, 교양적인 측면에서 높은 함의를 지니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한국에서 기독교는 종교적 담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들의 서적은 많은 부분 본교의 신학적 이해나 고백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책이 적지 않아 반가웠다. 그 소통의 매개는 역사와 고통이다. 역사 속 예수, 역사 속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도 인류사와 한국사의 흐름에 같이 할 수 있었다. 구약과 신약의 언어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밝힌 것이나 한국 기독교에 대한 천착은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독교를 반성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고통에 같이하고, 개인과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겨나간 모습은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그 외 예술이란 매체 역시 기독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교양서 역할을 보여주었다. 역사적 성화만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 미술은 기독교와 인간을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 운동은 기독교 밖의 여러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교양 도서는 이렇게 기독교와 일반인의 벽을 허물과 공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조금 아쉬운 점은 번역

서가 많은 양을 차지하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기독교를 넘어 일반인의 영성을 일깨워주는 명상서는 부족한 것 같다.

ㅇ 올해의 기독교부문 교양서적으로 훌륭한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특별히 훌륭한 외국서적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저명한 외국 신앙 및 신학 서적이 탁월한 번역을 통해 우리말로 옮겨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국내 저자의 도서보다 번역 서적이 도서 내용의 수준에 있어서 훨씬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번역서 중에는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진지하고 다양한 접근의 도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도서에는 성서와 신앙을 현실의 문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 가려는 노력들이 보였고, 새로운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재 교회 상황을 성찰하는 도서들이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ㅇ 상정 도서들은 인물, 윤리, 여성, 환경이나 자살, 젠더와 같은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비구니 선지식 일엽의 삶을 재조명한 책은 이전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준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느꼈고, 브랜드로 그리스 신화를 풀어낸 책은 익숙한 브랜드에 담긴 신화적 의미를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인 죽음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룬 책들도 인상적이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녹아 있으면서도, 이를 일상과 연결시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려는 의도와 내용을 담은 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이번에 상정된 도서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죽음과 소외 그리고 고독사, 신화, 은둔자에 대한 관심과 지구 환경문제, 명상 특히 불교와 관련해서는 초기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까지 다양한 경전을 통해 불교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해설서가 많이 출판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번역서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부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교적 입장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도서가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풍성한 도서 가운데 중복된 주제의 번역도서, 개인의 신변 이야기는 추천에서 피했다.

ㅇ 분　　과 : 사회과학

ㅇ 상정 도서들은 최근 경영 환경에 적합한 경영전략과 리더십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영이 현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실용성이 탁월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갖는다면 상정 도서를 접하는 독자들은 차별성과 전략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고 팀워크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저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상정 도서들은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영 분야에서의 실무적인 관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서 경영자, 직원,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상정 도서들은 경영학 분야에 여러 개념을 접목하여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이끌면서 교육 측면에서도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인 조직 인사관리, 마케팅, 최신 IT기술관리, 경영전략, 성과관리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충분한 설명 과정이 담기면서 독자의 시선을 잡는 책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 상정된 도서들 대다수가 시의적절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자들이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주제이지만 비교적 평이한 글로 설명하여 독자들의 가독성과 친숙도를 높인 점이 돋보이는 책들이 많이 보였다. 특수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제보다는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숫자의 선정 도서를 고르기가 매우 힘들었다. 책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이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물론이고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도서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길 부탁드린다.

ㅇ 이번에 상정된 도서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핵심 키워드는 ‘실용’이었다. 창업, 재테크, 세무 관리, 조직 운영, 브랜딩 등 실생활과 직결되거나 직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주제를 다룬 교양서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도서별로 다루는 주제가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편집과 구성 면에서도 독자의 몰입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적극 반영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경영 분야 교양서 출판이 점차 독자 중심의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ㅇ 심사 도서들의 경우, 10대 청소년(초등학생 포함) 도서가 다수 있었으며, 투자

(가상화폐와 코인 등) 및 재테크, 마케팅(브랜드 포함) 등 매우 다양한 주제였습니다. 문학, 철학, 인문학, 경제사,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연결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시도한 도서들이 있었으며, 일부 도서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공급망 이슈, 탄소 전환과 에너지 전환 이슈 등 매우 시의성 있는 주제가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전공도서의 성격을 띠는 일부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최근 이슈 및 독자의 흥미와 생각의 깊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 심사 대상 도서들은 총 93종으로 경제학 이론, 경제사, 경제지식 등은 물론 투자, 저축, 노후대비,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경제학에 관심을 가질 만한 20대 이상의 독자들은 물론, 10대 또는 그 이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서적 성격의 도서도 다수 제출되어 출판 대상의 폭도 확장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분야 도서출판의 전통적인 주류라 할 수 있는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물론 최근의 이슈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도서들이 많이 제출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특징이라 사료된다. 한편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경제학 이론 및 현실 경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양서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경제학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통찰이 담겨있는 도서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심사에서는 단순한 돈벌이 비법류의 도서보다는 독자들에게 현대경제 및 세계경제의 추세적 변화를 제공하고, 현실 경제를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설명하려는 깊이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ㅇ 상정도서들은 최근 위기의 세계경제를 반영하듯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반복되는 경제의 역사에서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들과 반복되는 위기와 기회의 사이클 속에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어내고 예측하고자 하는 도서들이 많았다. 더불어 확장되고 있는 크리에이터 경제 속에 변화하는 비즈니스와 트렌드를 반영하고 블록체인 주식 경매 부동산과 같은 투자의 절대법칙을 제시하는 도서들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불확실한 상황 속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찾아 미래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세종도서로 권하고 싶다.

ㅇ 총 92편의 경제 교양서가 접수된 가운데, 사전 심사를 통해 기본 요건 충족 여부와 주제의 신선성, 독자 접근성 등을 검토하였다. 1차 심사에서는 기획, 내용, 편집 등의 공통 항목과 교양부문이 가져야 할 가독성, 흥미성, 교육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선정된 도서들은 경제사, 글로벌 경제 질서,

자본주의 이해, 위기 관리, 개인 금융,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각기 독특한 접근법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정도서에 대한 개별 심사평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 질서와 위기 관련 도서는 경제의 큰 흐름을 조망하며 자본주의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쉽게 풀어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오늘날 경제 시스템이 단순한 시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경제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현대 경제 내 소비문화와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다룬 도서들은 명품 산업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소비 심리를 분석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를 통해 개인이 어떻게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 산업에서 첨단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며, 경제 주체의 다양성과 혁신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개인 금융 관련 도서들은 개인 재무 관리와 금융 이해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 재테크 및 금융 지식을 생활 속에 접목시키며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경제 문해력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실용적 안내서로서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경제 교양서는 역사적 통찰과 현실 경제의 이슈를 균형 있게 담아내며, 독자들이 경제를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경제는 단순한 수치나 이론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체계임을 보여준다. 특히 자본주의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동, 소비와 디지털 경제의 혁신, 개인 재무 역량의 중요성, 그리고 위기 관리와 정책 대응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경제 현상을 다층적으로 조망한다. 이들 도서는 경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리감을 줄이고, 누구나 경제를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상정 도서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과 일반 독자들이 교육과 사회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부 도서는 글로벌 기술기업이나 창업 이야기를 통해 미래 사회를 전망하게 하고 다른 도서는 교수-학습 역량이나 독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독려한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다룬 책들은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발전을 성찰하게 만든다. 다만 사회과학 교육1분과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참신한 주제를 다룬 책이 드물고 내용적 깊이가 부족한 책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선정도서들은 평가 항목의 선정 기준(교양, 기획, 내용, 편집)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되며 가독성과 교육성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독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상정된 도서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AI 관련 도서들이 많았다. 특히 교육에서의 AI활용, 장점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포함한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성찰하면서 대안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도서들이 많았다. 또한 교육이라는 활동을 학술적 측면이 아닌,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다룬 도서들 역시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8개의 도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험적이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되, 내용보다는 흥미를 중시하거나, 반대로 실험성과 가독성은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내용만이 강조된 도서들은 가급적 제외하면서, 독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고, 일상 삶 속에서의 교육이라는 활동에 대하여 한 번쯤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법한 도서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ㅇ 교육 분야의 도서들을 살펴보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지점들이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 문해력 문제, 새로운 교육과정과 같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고자 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정서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마음을 챙기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돋보였다. 학교의 작은 교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함축하여 담고 있는 것처럼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들을 교육 분야에 한정하여 본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자칫 더뎌 보이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돋보이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ㅇ 심사 대상 도서들 중 상정 도서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인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소통에 대한 전략과 개선 방안, AI시대를 맞아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야 하는 여러가지 전략들, 입시 환경에 대한 이해 등 시의성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회 변화와 관련된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현장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반영하고자 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보고자 했으며, 또한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될 만한 미시 전략을 담은 책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관련 현장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에도 유익할 것이라 판단된다.

ㅇ 상정된 도서들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도서들은 다양한 학습전략, 수업 방법 등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의 광범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태교육이나 기후 위기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교육의 분야이다. 또한 최근에 등장하는 ChatGPT를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소개함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이 소

개되었다. 앞으로 21세기 미래 교육을 위해서 기후 위기와 생태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길 바란다. 그리고 교육의 실제 현장에서 ChatGPT를 교사와 학생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다양한 도서가 개발되길 바란다.

ㅇ 상정 도서들은 교육 분야에 있어 시대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 공동체성 회복과 치유, 자녀 양육, 자기주도적 학습과 질문, 문해력, 진로 선택 등에 깊이 있는 시도들과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교육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효율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과정과 성장에 중점을 둔 견해 및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이 강조되어 있다. 이 책들을 통해 이 땅에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며 서로 존중해 나가길 기대한다. 교육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은 초창기이기에 다양한 시도들이 반갑다. 이 분야에 깊이 있는 사유가 동반되고 인간의 성장을 이끄는 길을 안내한 도서들이 더 많이 출간되길 희망한다.

ㅇ 상정 도서들은 사회패러다임과 교육 패러다임, 최근 사회의 관심사 등을 다양하게 보여 주었다. 특히, 인권과 성평등, 장애와 돌봄, 동물들 등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심리를 다루어 다채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 관련한 통찰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이 돋보였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도서들은 다채로운 다양성을 통해 시사하는 도서들이 많아 독자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심도와 이해를 제공한 것이 돋보였다. 다만, 내용과 편집 등이 미흡한 도서가 상정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ㅇ 사회 및 복지 분야 상정 도서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주제를 다룬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물권과 관련하여 이를 검토하고 살펴보는 도서들과 성평등이나 노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다룬 경우가 인상적이었다. 전통적인 주제로 사회 계층이나 계급에 대한 문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안을 제시한 도서들도 눈에 띄었다. 새로운 주제들로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AI와 같은 과학기술의 변화를 다룬 도서들과 경제 환경 변화에 주목한 도서들도 있었다. 이번 도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ㅇ 이번 심사에 제출된 도서들은 시급한 사회적 문제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요한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적 경험

을 바탕으로 기술된 도서에서부터 전문성과 통계 등을 기반으로 기술된 도서까지 도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 장애, 돌봄, 인권 이슈 등 우리 사회에 중요하지만 때로는 부각되지 않은 이슈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기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를 돌아보게 하는 도서들이 다수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이슈에 대한 관점의 확대로 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의 도서들과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출판되길 기대한다.

ㅇ 국내 저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창작도서로서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이끌고, 책읽기의 재미를 느끼게 하며, 깨달음의 폭을 확장하는 인권, 장애, 사회, 계급론, 의료, 정신, 노인 분야 다양한 도서들이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국내외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유의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존의 도서들에 비하여 도전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도서들이라 평가되어, 교양도서로서의 가치가 높고 국민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도서들을 통하여 독자들은 책을 읽고 새롭게 사유할 수 있고, 기존의 것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며 또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다.

ㅇ 이번 선정 대상 도서들은 대상에 있어서 유아에서부터 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함하였다. 주제도 뇌과학, AI, 교육, 공감과 소통, 노화, 환경, 독서, 글쓰기, 고전 읽기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향후 사회 관련에 주요 이슈인 AI, Chat GPT, 뇌과학, 행복, 환경, 고령화 등에 대해 다양한 현황 소개와 진단,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 점들이 돋보였다. 또한 저자들도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거나 작가로 활동한 분들은 물론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글쓰기를 시작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디지털 시대에 독서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의 독서 활동과 출판에 대한 더 많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요청된다. 공적 예산을 써서 운영하는 세종도서 선정의 취지를 고려해 도서의 공공적 가치와 도서관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ㅇ 이번 상정된 도서들은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최신 화두를 다루고 있으며, 많은 도서들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개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각도에서 실천적 영감을 주고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술되었다. 교양도서로써 갖춰야 할 가독성,

흥미성, 교육성을 충실히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작가들과 새로운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심사에서는 이들 도서 중에 좀 더 신선한 관점과 짜임새 있는 내용 등이 충실한 책들 위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자기 계발이 인간으로서 보편성과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듯이, 이번에 심사했던 도서 역시 보편적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자기결정과 성찰, 관계 맺기와 소통, 디지털 역량 개발과 재테크 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초등학생, 청년, 중년기,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특수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질 개발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비혼자의 삶, 희망 퇴직, 주식 투자 등 현실적 주제가 눈에 띄었고, 단순한 이론의 소개가 아니라 저자 자신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간 것이 인상적이었다. 심사 도서 중 번역서도 많아졌다. 다만 자기계발의 방향이 도구 사용이나 인간관계 역량 함양을 넘어 자기 성찰에 이르지 못한 도서가 많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ㅇ 심사 대상 도서들을 통해 자기개발을 위한 교양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주제들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지식을 다루는 새로운 역량들에 대한 관심과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과 조직원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등에 대한 주제 영역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기계발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단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의 자기개발서 보다, 실패로부터의 성찰을 통한 성장의 힘을 기르거나 바쁜 일상을 멈추고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책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도서들이 널리 관심 있게 읽히기를 기대해 본다.

ㅇ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폭시킨 12.3 계엄 사건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저서들이 우후죽순 발간되었지만, 교양 저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분석의 깊이가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바야흐로 세계는 트럼프 라운드 시대에 돌입하여 자유주의 시대는 물러가고 보호주의, 경쟁적 산업정책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트럼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저서들이 발간되었다. 분명 시의성이 높은 저서들이며, 이를 통해 과연 미국의 본심은 무엇인지 그 대외정책의 향방을 어떻게 예측 가능한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점에서 추천된 8권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해답을 찾는 데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2025년 정치외교 관련 도서출판은 두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가 빠른 시간 안에 평화롭게 공고화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2024년 12월 3일 밤 깨어진 후, 비상계엄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저작이 쏟아져 나왔다. 비상계엄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에 대한 저작 활동이, 꼼꼼한 글쓰기의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치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독자에게 묻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2차대전 후부터 2010년 대까지 작동되던 미국 국내 정치의 관행이 이미 해체되었다는 점을 넘어 전 세계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현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에 관한 다양한 저작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묻고 있다.

○ 상정 도서들을 집필하신 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린다. 디지털노마드 시대, 책보다 SNS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깊고 넓은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귀한 책을 만들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번 상정도서들은 최근 발생한 국내, 국제사회의 이슈부터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던 철학적 문제까지 참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서술 방식과 기법도 만화에서부터 통계 기법, 전통적인 서술 방식까지 다채로워서 한국도서발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좋았다. 기획이나 편집 기술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고 겨냥하는 독자층도 폭넓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치적 이슈를 다룬 주제들도 많았는데 극단적인 양면성이 나타나서 독자들을 불편하게 할 여지가 있는 책들도 다수 있었다. 오랜 고민과 정보의 축적을 통해 저술된 책도 있고 저널리즘처럼 시류에 부응한 책들도 있다. 도서의 질적 측면에 대한 최종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지만 선정 기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을 근거로 독자의 시각에서 가독성이 좋은 도서를 선정하려고 했다.

○ 2025년 출간된 정치외교 분야 도서의 경우 우리 시대의 걱정과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미국정치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책들이 주목을 끌었고, 국내정치 분야에서는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돌아보기 위한 성찰적 성격의 책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아울러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은 연구도서들이 출판되었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급진적 주장을 제시한 책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출판 경향은 한국사회가 처한 다층적 및 다면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 및 저자들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도서출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 민주주의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다룬 책

들에 대한 지식적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현재 출판된 책들은 내용적으로 깊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보다 심화된 저서가 출간된다면 한국의 지식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2025 세종도서 선정 총평은 최신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도서가 많이 출판되어, 공간, 노동, 자본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술 변화의 영향과 기회를 분석하며, 미래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기술 혁신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려는 독자에게 실질적 지침이 되는 도서가 다수이며,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광고 실무자뿐 아니라 창의적 표현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는 표현 기법을 알기 쉽게 풀어내어 실무 적용성과 학습 효과가 뛰어나며, 창의적 글쓰기를 통해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량의 도서로 우수한 세종도서를 다수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양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선정 도서 제한의 한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ㅇ 상정 도서들이 다루는 주제로 올해에는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전환이 부상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많은 좋은 도서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높은 지식과 통찰력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격동하는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러한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개인의 전략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상정 도서들이 수작이 많으며, 격변하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ㅇ 상정 도서들이 다루는 주제들은 다양했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사람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현상)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비교적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신체의 문제, 인공지능이 바꿀 일상의 모습,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미래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 고전들에 대해 이야기를 펼쳐놓는 풍경도 인상적이었다. 이들이 펼쳐놓은, 때론 유쾌하고 때론 진지한 문제 제기는 책 읽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사회과학-인문학의 이 분과에서 심사 대상으로 올려진 책들에는 실로 다양한 주제가 있었다. 그런 중에서 특히 감정, 몸, 관광, 여행, 기술 등에 대한 것이 많

았다. 현대사회는 매우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를 담는 지식인들의 관심이 표출된 것이다. 몇 년 전까지 많았던 페미니즘의 책들이 없어진 것은 주목할만했다. 그 대신 기술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많이 제출되었다. 이 문제는 코로나 이후 지구세상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와 더불어 진지한 주제이다. 이러한 분야의 돋보이는 글이 앞으로 기대된다.

ㅇ 상정 도서들은 대부분 기후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과 방법들을 다루고 있었다. 대부분의 저서가 기후 위기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적절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었다. 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해결책을 교육해 주는 저서들이 많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좋은 저서들 중에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과 사례들을 제시한 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좀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커다란 화두 중의 하나는 단연코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기후 위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일 것이다. 너무나 소중하고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이 우리 사회에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관련 교양도서의 독서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인공지능 AI의 활용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공된 모든 도서가 우수하지만 그중에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수한 도서의 제공에 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ㅇ 사회문화 분야의 상정도서는 국가(지역), 민족, 사회, 정치, 인권, 문화, 교육 등으로 분야가 다양했다. 대상으로 삼은 소재의 신선함에 주목을 끌 수 있는 도서가 많으나, 주제의 경우 심도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분야 도서의 경우 일생사(생활사), 세계 문화의 다양성, 한국 전통음식과 재료에 대한 이해,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에 대한 기초 도서 등이 선정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학문적 폭이 클 수밖에 없지만, 각 출판 도서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준 높은 지식이 양산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채로운 시각을 가진 도서들이 출판되도록 창작과 관련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사회문화 분과의 상정 도서들은 사회생활과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문화적 소재들을 탐구하고 소개하거나 문화적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주제나 역사적 주제 역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책들이 많아진 인상을 준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문화적 접근을 하는 도서들의 제작은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세계사적 맥락 및 이른바 K-컬처가 주목받는 현재의 시대적 배경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흐름 아래서도 각 도서들이 다루고 있는 세부 주제는 개성이 강하고 접근 방식도 다채로운 점 역시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획 의도나 시의성은 높으면서도 내용상의 함량과 책 만듦새는 다소 떨어지는 도서들도 상당수 있어 아쉽고,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주제를 교육하려는 목적의 도서들 중에는 약간 상투적이지 않나 생각되는 책도 없지 않았다.

○ 법, 행정, 언론 분야의 저서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대적 관심과 변화를 뚜렷하게 반영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헌법과 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층적 해설서에서부터 최근 법적 사안을 다룬 저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미디어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책들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공직 사회와 언론 현장의 경험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담아내어 제도와 현장의 동학을 드러내는 저술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룬다. 한편, 대중성을 앞세운 실용적 저서들은 읽기 쉽고 흥미롭지만, 충실성과 분석의 깊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 2025년 교양부문 신간 도서는 계엄 사태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가, 공직사회에 대한 성찰과 혁신 방안에 대한 모색, AI 중심 디지털 미디어 전환이라는 세 가지 큰 흐름으로 특징지어진다. 기존의 이론 중심의 출판 경향에서 벗어나 현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도서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제도, 행정, 언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다룬 융합적 접근의 전문도서들이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헌법, 민법, 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기초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도서들과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유튜버를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법, 저작권 보호, 생활 속 소송 상식에 관한 실용 도서들도 다수 발간되었다.

○ 상정 도서들은 법학, 행정, 언론 영역에서 현대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관심사를 다양하게 포섭하고 있었다. 계엄과 탄핵 등 헌법적 문제들이 화두로 떠오

르면서 법학 관련 도서 중 헌법 분야의 도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증가하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작권, 미디어 제작 등 콘텐츠 제작 기술과 방법, 주의 사항 등을 다루는 도서들도 두드러졌다. 동시대 주요 관심사를 단초로 하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혜안을 가진 도서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독자들이 폭넓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분　　과 : 자연과학

ㅇ 상정 도서들은 자연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까지 연구 성취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양 도서라고 하지만, 과학 개념을 단순히 만화나 스토리텔링 등의 형식에 담아서 쉽게 소개하는 도서는 배제하였다.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다루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서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발달하는 과정을 다루면서 과학이란 무엇이고 과학이 우리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금번 선정된 도서들은 과학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거나, 오늘날 뛰어난 과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과학의 업적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과학을 표방하지만 과학이 아닌 것의 실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대중들이 자연과학을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스토리텔링 또는 서사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저자들의 경우 외국 서적들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고, 외국 저자들의 경우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는 신선한 관점을 선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선정작 이외의 도서들 중에서도 훌륭한 저서들이 많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문화가 한층 더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상정 도서들이 다룬 주제는 기후, 환경, 대기와 지진, 천문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기후변화의 우려와 이해에 대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거나 사유의 다양성을 추구한 도서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의 과학적 기반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실험과 경험의 결과들이 제시된 것 또한 인상적이다.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의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의 태양계

환경과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의 이해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즐거움과 깨달음을 선사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탁월하다.

ㅇ 최근 발표된 환경 및 생태 관련 도서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감각과 예술을 매개로 자연에 다가가는 방식이 돋보인다. 특히 예술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의 환경감수성을 자극하는 한편, 일상과 자연의 접점을 드러내어 환경 문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다. 비록 각 책마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독자의 마음을 열어 환경을 '내 문제'로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을 거창한 담론이 아닌 생활 속 경험으로 끌어들이며, 독자의 참여와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상정 도서들은 지구과학 분야의 천문, 해양, 극지, 지질, 대기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지구과학 분야 특성상, 현장을 직접 누비는 현장 연구자들의 실제 이야기와 생동감 넘치는 사진 등이 담겨 있는 도서들이 인상 깊었다.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종이책으로도 벅찬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도서들이 많았다. 다수의 도서가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흥미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심도 있는 과학적 지식을 재미있고 친절하게 풀어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ㅇ 생명과학 분야의 도서들이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과 자유로운 표현의 결과물로 도출된 우수한 도서들이 제출되었으며, 많은 독자들이 매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뇌과학 분야는 더 다양한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이 더 다양하였으며 특히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을 다루는 분야도 여러 권 제출되었으며,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다채로운 내용으로 저술이 된 것 또한 교양부문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매우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을 통해서 많은 저술 활동이 더 활기차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도서의 출판, 훌륭한 도서를 선정하여 많은 독자들이 이를 읽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계기는 일반 독자들에게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ㅇ 심사 대상 도서의 경우 분자생물학, 뇌에 관련된 내용, 진화인류학, 생물다양성, 심장을 포함하는 의학, 세포생물학, 스포츠과학, 인체생리학, 생명공학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팬데믹을 거친 이후의 백신 관련 관심으로 RNA 등의 도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우수 번역 도서도 있었으며 교양도서답게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이는 도서도 있어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약하면,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교양도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 도서를 추천하려고 노력하였다.

ㅇ 세종도서의 교양 부문 선정 기준인 가독성, 흥미성, 교육성과 공통 기준인 기획, 내용, 편집에 대한 평가를 92종의 생물학 분과 출품 서적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9종을 선정도서로 추천합니다. 평가를 위해서 이들 선정 기준과 더불어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 더하여 흥미와 대중성을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세부전공 분야를 포함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서로는 국내 창작 도서 외에도 2권의 역서가 포함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도서와 도감/백과사전도 포함되었으며, 세부 전공 주제도 식물, 동물, 곤충, 인간과 생태, 분류, 생리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추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며 창작 활성화 유도를 통한 출판산업 진흥이라는 세종도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정도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ㅇ 제출된 도서들은 생물학 분야의 다양한 부분을 다룬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물, 인간을 포함한 동물, 미생물 등의 분야에서 새롭고 폭넓은 개념과 정보, 생각과 추론들이 담겨 있었다. 도서에 대한 대상도 유아, 초등, 중등, 일반인에 이르러 넓은 도서들이 출간되어 제출되었다. 특히 환경적인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을 독자들에게 알게 하고 생물과 함께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도서들이 많았다. 선정된 도서는 식물, 동물, 인간을 주제로 하는 생물학 분야를 대부분 포함하였고 식물 중에서는 나무, 동물 중에서 개미, 유인원, 인간을 주제로 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주제로 생태 감수성에 대한 도서가 선정되었으며, 기획, 내용, 편집 등의 항목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이 선정 도서들은 생물학 교양서로서 독자들에게 생물에 대한 커다란 깨우침과 삶에 대한 태도와 실천으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상정 도서들은 수학, 물리, 화학이라는 세 학문 분야에서 일반 독자들을 위한 대중 교양적 관점으로 설명한 책들로, 복잡한 과학적 원리도 복잡한 이론이나 수식보다는 일상적 사례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설명한 경우가 많아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다. 학문적 깊이와 체계성을 두루 갖춘 저작이 많으며,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이차전지 등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룬 책들이 많아 일반 독자 또는 청소년들이 흥미 위주의 일반 교양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쌓기에 용이한 책들이 많아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ㅇ 수학 물리 화학 분야의 기초를 대중에게 친숙하고 흥미롭게 전달하고자 기획한 도서들이 풍부하게 출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문적 연구 내용을 현실 활용과 연계하여 쉬운 언어로 풀어서 소개하는 책들도 상당수 있어서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수학, 물리 화학 내용의 그림책이나 동화들도 다수 출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내용과 재미 측면에서 모두 훌륭한 책들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수학, 물리, 화학을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수학 / 물리 / 화학 선정 도서는 해당 기초학문 분야에서 역사 및 발전, 개념 이해, 일상의 적용 등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지적 수준을 넓게 때로는 심도 있게 다가갈 수 있게, 여러 갈래들을 폭넓게 제공한다. 본 도서들은 기초 학문 분야의 발전과 대중화, 그리고 이를 통한 과학 지식 기반 사회를 세우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충족하며, 일반 독자들의 시선에서 이해도를 높이는 가독성 높은 글과 그림으로 채워져 있으며, 흥미를 잃지 않게 그 시선을 붙잡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ㅇ 분　　과 : 기술과학

ㅇ 상정 도서들은 육아, 학습, 그리고 부모 역할 등으로 다양하고, 저자 또한 육아 및 부모 교육 전문가에서부터 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공유한 부모들로 매우 다양하였다. 주제도 구체적인 영역의 지도법에서 자녀와 소통과 공감을 다루는 것까지 다채로웠으며, 대상 연령도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이 풍부하였다. 매우 다양한 책들에서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이번에 상정된 도서들의 주제는 문해력, 의사소통 방법, 부모의 언어, 초등 적응 및 생활, 사회정서, 사춘기 이해 및 지원, 느린 아이, ADHD 등으로 다양하였다. 육아와 부모 교육 분야에서 느린 아이들이나 사회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양서적이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다수의 도서들은 인지 중심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서의 관심이 학교 교육과 성적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그럼에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서나 부모 교육서들이 증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나 AI 관련 도서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향후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부모 교육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의미가 드러나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심사 대상이 되는 도서들 중 인공지능이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한 도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변화하는 기술적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도움을 주려는 출판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역사적 주제를 다루는 책들 또한 상당수가 있었으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채롭고 양질의 책들이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책의 수준이 아동용에서부터 전문적 교재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교양 부문임을 고려하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책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ㅇ 이번 상정도서들이 다룬 주제는 건축, AI 기술 및 윤리, IT기술 및 공학적 윤리, 기타 주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이번은 건축기술 및 건축의 역사,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서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교양 서적으로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너무 어려운 도서는 가능한 배제하고, 가능한 최근에 주요 이슈가 되어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다룬 도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가능한 알기 쉽게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줄 수 있게 서술된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올해 출간 도서들을 살펴보면, 국내 출판계의 관심이 뚜렷하게 ‘미래 기술’과 ‘공간(건축)’이라는 두 축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사회적 논의에 힘입어 인공지능(AI)을 다룬 도서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기술 원리・윤리・사회변화・교육・노동시장 영향까지 전방위적 접근이 돋보인다. 동시에 기후위기・고령화・도시문제와 맞닿은 건축・도시 관련 도서도 풍성해지며, 건축을 단순한 양식이 아닌 사회적 실천으로 바라보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반도체・로봇・우주・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교양서가 다수 출간되며, 미래세대의 과학적 소양 함양에 대한 출판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 생태계가 전환기적 변화에 대응하며 기술과 인간・

환경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ㅇ 올해는 상정 도서들이 교양도서라기보다 실용서에 가까운 도서들이 많았다. 실용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교양도서로서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의학/건강 분야에서의 교양서는 엄밀한 과학적 근거까지 요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문적 내용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흥미를 주고 교육적 성과까지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행히 많은 도서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시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도서가 많았으나 편집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웠다. 앞으로 더 발전을 요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ㅇ 이번 분과에서는 의학과 건강 분야의 도서를 폭넓게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13권을 선정하였다. 단순히 흥미로운 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에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삶의 전 과정에 걸친 건강 주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예방, 스크리닝 영역에서는 성인 독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첫 단추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이용과 의사결정 영역에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판단과 행동을 돕는 책을 배치하였다. 정신건강, 중독 및 신경과학 영역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겪는 중독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가족, 생식, 여성건강 영역에서는 의학 문제를 전문적이면서도 공감적으로 다룬 책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 청소년 영역은 청소년 뇌 발달 등 꼭 필요한 주제를 담아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의학 영역에서는 습관, 식사, 다이어트, 노화와 장수, 근육과 운동 등 일상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전략을 담은 책을 포함하였다. 이는 영양과 운동, 노화 관리라는 핵심 축을 다루어 독자들이 평생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내분비와 호르몬 영역을 더해, 인체 항상성과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의 과학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이번 13권은 예방–진단–치료–생활–정신건강에 이르는 전 주기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며, 환자, 가족, 일반 성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실용성과 공신력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ㅇ 금년도 상정 도서들은 생활과학 분야에서의 최근 국내 수요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국내 독자의 일상에서 가장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F&B 분야의 관련 도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패션, 뷰티, 농업, 환경(도시 및 정원, 주

거) 등 기타 분야의 도서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분야의 주제들이 사회적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성(친환경성), 건강,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측면의 소재들과 접목되어 독자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내용과 재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족이나 아동, 가계 관리, 윤리적 소비 등과 같은 생활 과학의 비주류 분야나 주제들이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ㅇ 상정도서들의 주제는 식품의 레시피, 에너지, 문화, 가드닝, 패션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다양한 서적들이 현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듯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면서도 사진과 이미지 등을 도입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공감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졌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도서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서적의 내용과 편집에 잘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TV, 인터넷 등과 같이 직관적인 매체에 비해 서적의 특징은 읽고 생각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적마다 저자의 논지나 경험을 내가 공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서적들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었다.

ㅇ 분　　과 : 예술

ㅇ 상정 도서들의 음악 부문은 클래식, 전통음악, 대중음악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타 전공자들이 클래식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고자 한 노력들이 돋보인다. 스포츠 부문은 헬스, 러닝, 국내외 프로스포츠, 스포츠 인문학, 스포츠 진로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스포츠 부문도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인다. 전반적으로 모든 도서들이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는 동시대성에 대한 출판의 양상들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판단된다.

ㅇ 심사 대상에 오른 도서들 중 음악 관련 도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스포츠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음악 분야에서는 여전히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책들이 많았고,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을 다룬 책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세부적으로는 클래식 분야의 플레이리스트를 다룬 책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흥미로웠다. 국내 클래식 서적이 다루는 주제가 여전히 베토벤을 비롯한 서양 예술음악의 위대한 작곡가와 글렌 굴드와 같은 인기 있는 연주가에 제한되어 있어 독자의 시각을 더 넓혀줄 수 있는 모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번역서를 두 권만 선정하였는데, 이 점이 아쉽

다. 내용과 번역이 훌륭한 책이 몇 권 더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저자를 존중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번역 작업 역시 상당한 지식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전문적" 작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번역서의 비중을 1/4로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ㅇ 이번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출품된 도서들은 상당히 다양성을 띠고 있었다. 구상회화 감상과 추상회화 감상 및 비평까지 그리고 우리의 전통미술, 불교미술과 현대수묵, 또한 전통회화의 경계확장과 해체 까지. 그리고 미술관 도슨트로서의 각국의 미술관 감상하기—작품 탄생 배경부터 작가의 삶과 예술,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방황 등등 우리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때론 적나라하게 표현한 책들도 있었다. 때론 교양부문 서적이라기보다는 전문 서적에 가까운 서적들도 있었던 점과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알려진 작가 소개는 아쉬움이 있다.

ㅇ 1차 심사 대상 총 143종의 미학, 미술 분야 도서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서양미술에 대한 감상 안내서들이었습니다. 작가에 대한 분석이나 미술관 탐방과 소개, 도슨트로서 작품을 설명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세태를 반영합니다. 일반인들의 미술관 방문이 늘어나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그 관심 분야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해설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밖에 개별 작가들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교양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서양화가들이 중심입니다. 작가 개인에 대한 탐구 외에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한국 작가들 중에는 생존 작가들의 자전적 작품해설서 등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술 교재나 학습 및 실습서로서의 도서들도 적지 않습니다. 드로잉북이나 제작 레시피를 담은 참고서들입니다. 또 심오한 연구서를 번역한 전문서에 가까운 도서들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나 한국에 관한 교양서는 드물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얼마나 일반인의 관심이 서양미술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1차 선정도서들은 '교양' 도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기존에 알려진 작품이나 분야를 다루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거나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상기시킨 것들, 좀 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낸 도서들입니다. 교과서적인 단발적 지식 전달이나 현란한 이미지 위주의 것들보다 효과적인 편집이나 일러스트 등이 적절한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미술에 대한 것이면서도 자연이나 인간, 역사와 철학, 과학과 종교 등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서술된 도서에 주목했습니다. 또 한국 전통미술과 근현대 미술의 가장 두드러진 이슈들을 다룬 도서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서양미술에 비해 경쟁작이 적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거나 교양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ㅇ 상정 도서들 중에는 공연, 미디어, 예술 분야에서의 문화적 현상과 대중적 관심을 반영한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개념, 역사, 미학, 비평뿐 아니라 제작 및 창작론 등이 고루 다루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각 장르에 대한 최신의 경향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적 토대나 시대별 흐름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정리한 여러 책들이 눈에 띄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공연, 미디어, 예술 분야에 대한 교양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교양부문 예술 분야 88권은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아우르며 예술적 상상력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음악, 미술, 영화,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전통과 현대, 이론과 실천이 균형 있게 다루어졌다. 일부 작품은 평범한 구성과 독창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대체로 성실한 연구와 섬세한 문장력으로 전달력이 우수하였다. 전반적으로 학문적 성과와 대중적 소통을 동시에 지향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제시하며 예술의 의미를 확장하는 성과가 돋보였다. 특히 예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확장의 가능성을 모색한 시도들은 교양적 가치와 대중적 접근성을 동시에 담보하며, 향후 예술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디자인과 사진 분야의 교양서적들은 미적 감각을 풍부하게 해주며,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독자들이 시각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번에 선정된 서적들은 디자인/사진 분야의 학문적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학문적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번 우수도서들은 학문적 깊이, 문화적 통찰, 창의적 영감 등의 요소들을 담고 있어 누구나 시각예술/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삶의 폭과 감각을 넓힐 수 있게 합니다. 시각예술/디자인 분야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친절한 입문서로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ㅇ 상정 도서들은 최근 우리 시대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 예술 분야에서 기본적이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로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도서들이었다. 각 분야별로 균형 있는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디자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도서 선정에 선정 기준을 두었다. 선정된 모든 도서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심도 깊은 정보전달과 독자들에게 실용적 지식 전달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디자인, 예술 관련 도서들이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출간되고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ㅇ 분　　과 : 언어

ㅇ 상정 도서들은 최근 우리 시대의 언어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AI 시대에 급격히 변화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어떤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지, 어떤 언어 교수법, 의사소통 기법이 더 적절할지 등에 대한 고민들이 녹여져 있는 시도들이 돋보였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급변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언어 문화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려고 하는 여러 종류의 사전의 출판이 눈에 띄었다. 언어를 통해 급변하는 세상에 실용적으로 적응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동시에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언어를 심도 있게 바라보려는 인문학적 성찰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상정 도서들 속에 교양 언어 분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노정되었던 시의적인 주제들이 잘 반영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획이 눈에 띄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공이 많이 들고 깊이 있는 저작들이 이 시기에 출판에 이른 것을 목도하며 반가움을 만끽하기도 하였다. 언어 학습, 글쓰기, 언어 규범을 넘어 언어 관련 분야와 주제에서, 지적 축적과 내면적 성찰을 통해 우리 시대의 문화적, 지식적 성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품격 높은 저작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정되지 못한 도서들 가운데도 널리 보급하고 싶은 도서가 많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ㅇ 상정 도서들은 최근 우리의 언어생활 모습과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쓰는 매너와 질문하기, 댓글 달기, 효과적인 글쓰기, 각 언어에 대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합 습득 꾀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각 언어별로 이러한 현상은 공통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노력은 각 어휘의 어원, 사자성어의 기원, 어휘의 역사와 배경지식, 현대의 언어 변화 등을 흥미롭게 다루어 독자들의 교양 있는 언어 사용을 돕기에 충분해 보였다. 스토리와 활동을 통한 교양 있는 언어 습득뿐 아니라, 탄탄한 학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언어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우수한 도서들이 많이 상정되었다.

ㅇ 분　　과 : 역사・지리・관광

ㅇ 상정 도서들은 최근 들어 대중들이 역사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엄숙하고 무거운 민족주의적인 주제들이 한국사 대중서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본 상정 도서들은 전근대 조상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재를 선정하고 그것을 대중의 눈높이 맞춰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생활사나 미시사에서는 전문 연구자의 시각과 논점이 주로 반영되었다면, 최근의 대중서에서는 대중들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도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도서들보다 한층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올해 상정된 도서들은 한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주제나 시기, 시각이 중복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 교양 도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와 제목이 참신하면서도 내실 있는 도서들이 다수 상정되어 심사 기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 책을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감, 펼쳐짐 정도, 종이의 반사도를 비롯한 전체적인 도서 디자인 등 제책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구매욕을 자극하는 도서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출판 시장에서 교양도서를 읽는 독자층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깊어진 결과이며, 교양도서 독자층의 높아진 눈높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사업이 출판 시장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일 것이다.

ㅇ 전체적으로 흥미롭고 수준 높은 저서가 많았다고 여겨졌다. 시대와 주제에서는 근현대 생활사에 관련된 책들이 많았고, 해방 80주년이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독립운동에 대한 책들도 많았다. 중심되는 흐름이라고 판단된 근현대 생활사에서는 음식, 가요, 소비생활에 대한 책들이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다. 다양한 주제도 흥미로웠고 충실한 도판이 삽입돼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으며, 교양서에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학문적 깊이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어린이책들도 여럿 눈에 띄었지만 이미 많이 다뤄진 주제를 반복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눈에 띄는 번역서가 적었던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자료의 풍부함 때문에 근현대사에 무게가 두어지기 쉽겠지만 앞으로 주제를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고 시대적 폭을 넓히는 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ㅇ 한국사, 그중에서도 근현대사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현실성 있는 주제를 탐구하

고, 이를 연구와 저서 발간으로 진전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집필 동기와 그에 걸맞은 충실한 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다양한 역사 주제가 다뤄졌고, 사료-지도-삽화-영상 등 풍부한 역사 콘텐츠가 활용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주제의식과 이에 대한 탐구 노력, 입체적이고 가시적인 콘텐츠 활용, 대중성 있는 문화사적 결과물, 시의적이고 사회적 반향을 줄 수 있는 저작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 상정 도서들은 관광, 지리,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관광 지리 분야의 관심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다수 좋은 내용과 정보들을 담고 있었으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특정 연령층과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였고, 또한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내용과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도서들도 주의 깊게 살펴 교양도서로서 많은 독자층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면서도 교양도서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가독성이 높은 도서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상정된 도서들은 수도원이나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특정한 곳에 대한 여행기도 다수이며, 아프리카의 낯선 땅에서의 삶을 다룬 에세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중앙아시아 등 넓어진 여행 대상 국가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를 다룬 도서가 또한 많이 상정되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매우 좋은 도서들 가운데 지나치게 개인적 경험을 위주로 서술한 책보다는 역사 지리 분야에 상정된 책들 가운데 교양도서로서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살던 익숙한 곳이 아닌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다.

○ 이번 심사에 상정된 도서를 보면, 역사적 인물 평전, 중국사, 일본사, 인도사, 중앙아시아사, 여행, 도시와 문화 등 주제와 분야가 다양하였다. 특히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분야가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시의성이 높은 주제도 있었다. 다만 동양사 분야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다소 애매한 주제도 있었으며, 다소 오래된 주제나 분야의 도서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역사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상당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책들이 다수 출판된 점은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ㅇ 이번 심사에 제출된 역사, 지리, 관광 분야 도서들은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아우르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로 구성되었다. 세계 다양한 지역과 문화, 역사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출판업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져왔던 중국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서, 번역서는 물론 동남아시아, 인도, 일본에 대한 다양한 대중 교양서가 출간되어 이 지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서보다는 수준 높은 번역서가 많았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의 아시아 연구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ㅇ 상정 도서들은 실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이 독서 대중의 교양 함양과 이해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 순수 교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 현상 및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서구의 양서 중 상당수가 번역된 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130여 권에 달하는 도서 중 선정된 것들은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된 것들이다. 아무쪼록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풍부한 내용으로 채운 양서들이 많은 이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상정 도서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통과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 동유럽사를 포함한 국제 정치, 환경과 동물권, 일상생활사 등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올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을 불러일으킬 수준 높은 교양 번역서들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며 다양한 주제와 다층적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수준 높은 주제 의식을 담고 보다 정제된 언어와 통찰력이 뛰어난 사유가 돋보이는 도서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회의

ㅇ 일　　자 : 2025년 10월 16일(목) * 현장 회의 기준

ㅇ 장　　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903호

ㅇ 선정위원 : 총 9명

ㅇ 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회의 선정 내역 보고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역사/지리/관광	계(종)
16	67	29	145	44	40	40	11	48	440

- 1차 선정도서 검토(선정 제한/제외 사항 등 확인)
-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회의 및 선정도서 확정(423종)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역사/지리/관광	계(종)
16	62	27	141	44	37	39	10	47	423

붙임 :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회의 선정 총평. 끝.

202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회의 선정 총평

[위원장 총평]

이번에 접수된 도서들은 총 4,628종으로 총 9개 분과 별 심사를 거쳐 개정판 여부 및 학습 교재류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17종을 제외하고 최종 423종을 추천도서로 선정하였다. 금년에 접수 및 선정된 도서들의 특징은 현실을 반영하거나, 인공지능, 비트코인, 백신, 뇌과학, 등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아진 주제가 많았으며, 세종도서의 교양부분 선정기준인 가독성과 흥미성 그리고 교육성과 뿐만 아니라 기획, 내용, 편집에 강점을 지닌 도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분과별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총류] 분과에서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도서로 구성되어 있었고, [철학/심리학/윤리학]의 경우 심리담당, 생활적응, 정신건강 및 인간 실존 등 다양한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종교] 분과의 경우 폭넓게 다양한 형태의 도서가 다수 포함되어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연관성과 적절성을 가지는 내용과 교양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었으며, [사회과학]의 경우 복잡다단한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내용이 많았고, [자연과학]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내용의 도서가 접수되었으며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 등의 주제를 다루는 도서를 집중 검토 하였으며, [기술과학]의 경우는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관심이 축소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소분야 또는 주제 소재들 보다는 가장 트랜디한 분야가 과도하게 다루어진 점이 아쉬웠다. [예술]분과의 경우 선정도서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교양적 가치와 대중성 접근내용이 돋보였다. [언어] 분과의 경우 언어를 통해 좀더 실용적으로 기술에 적용하여는 시도와 오래된 언어 문화를 지키려는 시도가 보였다. [역사/지리/관광] 분과의 경우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도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한 도서의 출판과 훌륭한 도서를 선정하여 많은 독자들이 이를 읽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진다면 일반 독자들에게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되며, 이런 측면에서 금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결과는 그 의미가 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총류]

올해 총류 세종도서 상정도서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도서 선정은 그 가운데 시대적 의미와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도서를 고심하여 진행하였다. 총류일반에서는 출판, 상식, 시사 등 복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도서가 상정되었다. 상정도서는 내용, 독자층, 디자인 등에서 각 권이 가진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중 남다른 기획으로 흥미 넘치는 내용을 담은 읽는 재미가 있는 도서와, 다채로운 편집과 디자인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세종도서의 품위를 이어 나가도록 선정하였다.
컴퓨터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후보 도서가 상정되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도구 등 컴퓨터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후보군이었다. 그 가운데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도서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무게와 깊이감이 다른 도서를 선정하였다. 세종도서로 선정된 총류의 도서를 통해 독자의 학문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철학・심리학・윤리학]

〈심리학〉 개인의 마음건강과 심리적 번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문화적 변동 추세를 반영하듯, 대다수 저술이 심리상담, 생활적응, 정신건강, 자존감 등의 주제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자기-이해와 자기-긍정이 개인의 삶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자기-이해와 긍정은 대인관계와 집단, 사회공동체의 맥락에서 정의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인관계, 집단, 공동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확장된 인간번영(human flourishing) 관점을 반영하는 저술이 등장하기를 고대한다. 또한 일부 심리학 원리를 대중이 알기 쉽게 소개하거나, 저자의 자기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 심리학 분야 교양서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정립된 심리학의 제반 개념과 이론, 유관 연구결과들에 기반한 원리-기반, 이론-기반 심리학 저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철학/윤리학〉 인간의 실존, 환경, 윤리, 여성, 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현대인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동서양 고전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 및 인공지능의 등장과 맞물려 니체를 중심으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는 도서들이 많이 출간되었고, 유학을 축으로 현대인에게 더 나은 삶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철학을 삶과 연결시키고 대중의 철학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 측면 모두에서 번역서가 국내 창작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도서들이 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소위

‘원형’(prototype)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의 고전 이론을 중심으로 기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시도가 주를 이루는 점이 아쉽다. 한국사회의 당면 문제들과 인류보편의 실존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작서가 더 많이 출간되기를 고대한다.

[종교]

종교의 영역에서 폭넓게 다양한 형태의 도서들이 출판되었다. 여러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성, 윤리, 역사, 예술, 환경, 인권, 사회, 자살, 젠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정도서들이 기독교부문, 불교부문에서 상정되었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사회문제, 교회의 진단과 이슈 그리고 종교적 의미와 성찰,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사회와 시대의 종교적 역할이 무엇이고, 인간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어야 하는지 논의한 저서들이 있었다. 특별히 탁월한 외국서적들이 번역되어 교회와 기독교인, 현대사회에 의미를 주고, 신앙의 깊이를 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내저자의 도서보다 번역서적의 도서 내용이 신학적 깊이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저자들의 깊이있는 연구와 함께 신학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불교와 기타종교의 관점에서는 한국불교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고 재조명을 해주는 책도 발간되고, 신화적인 의미를 확장시키는 책도 제공되었다. 인간의 숙명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책도 선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무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선정되었다. 종교 교양부문은 종교라는 주제를 뛰어 넘어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연관성과 적절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교양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종도서의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한국 출판의 발전을 기대하며, 독자들에게 풍부한 지적 내용을 충족하며, 교양적인 삶의 지혜를 발견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과학]

2025년 세종도서들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적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선정된 세종도서 <사회과학분과>의 도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실천적 통찰을 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도서들은 당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목록을 보면, 기후 변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노동 및 사회 변화, 불확실한 환경변화와 경제 재편,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심화, 부모와 교육자의 상담, 질문이 주는 힘, 흔들릴

때 지침이 될 만한 군주론 등과 같은 주제들이 핵심을 이룹니다. 이 도서들은 현상을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구조적 원인과 역사적 맥락을 파고들어 독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의 렌즈로 문제를 조명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아무쪼록 2025년 세종도서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과 통찰력을 길러 한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봅니다.

[자연과학]

이번에 선정된 기초과학분야 도서들은 과학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구성하고, 오늘날 조명되고 있는 과학의 업적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교양도서 이기는 하지만 과학개념을 단순히 만화나 스토리텔링 등의 형식으로 쉽게 소개하는 도서는 제외하였다.
생명과학분야의 도서들은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과 자유로운 표현의 결과물로 도출된 도서들이 접수되었으며 뇌과학, 생물다양성을 포함하는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 분야 도서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개념과 정보, 생각 과 추론들이 담겨져 있다. 도서에 대한 대상도 육아, 초등, 중등, 일반인에 이르고 있으며 기호 변화와 생물 다양성 등의 분야는 생물과 함께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학/물리/화학의 기초학문 분야는 역사의 발전, 개념의 이해, 일상에 적용 등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었으며 기초학문 분야 의 발전과 대중화 그리고 과학을 통한 지식 기반을 세우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요약하면, 세종도서의 교양 부분 선정 기준을 고려하 여 총 44종을 선정 도서로 최종 추천하였음. 자연과학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내용의 도서들이 접수되었고 과학발전의 역사, 뇌과학분야, 백신관련 RNA 내용, 수학/물리/화학 기초학문 분야의 개념 이해를 포함한 학문적 연구내용을 현실 활용과 연계하여 쉬운 언어로 소개하는 도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공 지능, 양자컴퓨터, 이차전지 등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룬 책들이 다수 포 함되어 있어서, 전문가로서 지식을 쌓기에 용이한 도서들이 많아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다수가 포함되었다.

[기술과학]

기술과학 분과는 인간의 실제적 생활과 관련된 분야이므로, 2025년 기술과학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주제는 크게 미래성, 현재성, 실용성, 지속가능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기계/건축/공학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이나

환경문제 등을 다루는 미래기술과 지속가능성이 공간이나 건축으로 연결된 주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활과학 분야의 경우, 현재 국내 수요와 관심이 반영된 F&B, 뷰티, 농업 등 하위 분야가 지속가능성과 건강, 라이프스타일로 연결된 주제들이 많았다. 유아/부모교육 분야의 경우, 현재 사회를 반영하는 육아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사회정서적 문제, 인지 중심 교육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주제들이 돋보였다. 의학/건강 분야의 경우, 실용적 도서 즉 예방-진단-치료-생활-정신건강에 이르는 전체 의학 및 건강 분야의 내용이 실용성에 초점을 둔 주제들과 연결되어 균형 있게 다뤄지고 있었다.
각 분야의 도서들이 개별 분야의 특징적 주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삶과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들에 대한 담론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2025년 세종도서에 올라온 도서들은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관심이 축소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소분야나 주제, 소재들은 다뤄지지 않고 있는 아쉬움 또한 있었다. 즉 현재 시점에서 가장 트렌디한 분야, 주제, 소재만이 과도하게 다뤄진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예술]

전체적으로 선정 도서는 최근 우리 시대 예술 분야에서의 문화적 현상과 대중적 관심을 반영하였고,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아우르며 예술적 상상력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 현상을 반영한 심도 깊은 정보전달과 독자들에게 실용적 지식 전달을 제공하여 이론적 토대나 시대별 흐름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 점이 우수하였다.
공연 미디어 예술 분야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념, 역사, 미학, 비평, 제작 및 창작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최신 경향에 주목하면서도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연구가 성실하게 진행되었다. 디자인 사진 분야는 학문적 깊이와 문화적 통찰, 창의적 영감 등의 요소들로 전공자와 일반 독자들에게 지식을 확장하고 삶의 폭과 감각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미술 미학 분야는 전통 미술의 경계확장과 해체까지, 미술관 감상, 작가의 삶을 통해 바라본 예술 등은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으로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음악 스포츠 분야는 클래식 음악과 과학 그리고 달리기와 과학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점이 신선하였으며, 음악을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다는 독창적인 인류학적인 관점이 새로웠다. 이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선정 도서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확장의 가능성을 모색한 시도들로 교양적 가치와 대중성 접근성을 동시에 담보하며, 향후 예술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언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언어 산출과 언어 이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언어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2025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언어 도서들은 언어 산출, 즉 쓰기와 말하기와 언어 이해, 즉 읽기와 듣기의 측면을 골고루 아우르고 있었다. 언어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매너, 질문하고 호응하는 방식 등 언어 활동에 대한 실용적인 니즈를 반영한 도서부터 말과 글 모두에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쉽게 풀어내는 도서, 그리고 말씨, 말투, 말짜임 그리고 말 매무새에 이르는 여정을 하나씩 풀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흥미를 돋우는 도서까지 그야말로 우리 언어의 모든 면을 아우르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의 도구인 어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결과들이 눈에 띄었다. 단어의 어원에 대한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어원을 통해서 그 사회와 문화,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 나가고 있는 저서들이 흥미로웠다. 또한 지역 언어의 어휘를 비롯한 문법, 화용 등 다양한 양상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도 반가웠다. 특히 인쇄 혁명 이후만큼이나 혼란스러운 AI 시대에 급변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읽고 쓸지, 어떻게 언어를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어떤 언어 규범이 AI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등 시의적절한 주제들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우리 언어 문화 전통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사전 편찬자들의 묵직한 결과물들이 유독 이번에 함께 세상에 나오게 되어 반가웠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언어를 통해 좀 더 실용적으로 기술에 적응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우리의 오래된 언어 문화를 계속해서 지키려는 시도가 여전히 함께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선정되지 못한 도서들 가운데에도 널리 보급하고 싶은 도서가 많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역사・지리・관광]

지금까지의 역사 관련 저작물들이 한반도에 머물거나 왕조와 위대한 인물 또는 전쟁 등 외세와 관계와 같은 통치 체계 중심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면, 2025년에 출품되었거나 선정된 도서들의 경우 목욕과 같은 일상사 또는 미술관이나 벽화 하나와 같은 작은 소재를 가지고 한반도를 넘어 인더스, 헬레니즘 문명까지 포함하는 국제적인 시각을 줄 수 있는 도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물들과 유적도 민중들의 생활사 또는 환경과 기후변화 같은 주제를 다룬 도서가 많이 발간되고 있어, 시대의 모습과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들이 다수 발간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시민강좌를 모아 발간한 책, 또는 왕과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을 떠나

왕비와 대비 중심의 역사를 기술한 도서도 역사를 수험생의 관점에서 배워온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역사의 많은 부분과 변화하는 시대에 관한 관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주고 있다. 공간적으로도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시각을 세계로 확장한 것이나, 시간적으로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유발하는 많은 도서들이 출품된 것으로 볼 때, 녹색세계사와 같이 세계적으로 족적을 남겼던 역사서들의 기초도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갖춘 저자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많은 저술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여행과 관련된 많은 도서들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과 건물 등에 집중되었던 단체 여행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미술관, 수도원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순례길이나 히말라야 안데스 등 소수에 의한 오지 탐험과 관련된 도서도 많아지면서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이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반영한 도서가 많아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